

國語方言에 나타나는 稀貴語

崔 鶴 根*

1.

「瓶」을 意味하는 「병」[pjəp]은 勿論 漢字에서의 借用語이다. 그런데 우리 固有語에 「瓶」을 意味하는 말이 없었을 理가 없다고 생각된다. 왜냐하면 우리 高麗陶瓷器에 무수한 遺物이 發見되고 있고, 또 現存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이 「병」(瓶)은 現方言에는 모두 이 「병」系의 變化形(variants)이 大部分인데

병[pep] (강원, 경북, 경남, 전북, 전남) 等地.

병개[peŋge] (충북).

빙[pin] (경북, 경남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남, 제주) 等地.

비이[pipi] (경남—밀양, 남해).

等等, 此外에도 相當히 多數의 變化形을 各地에서 發見할 수 있는데, 全南 地方의 一部에서는 全然 別系의 「시옹」[siop], 「송」[sjop]形이 發見된다.¹⁾ 卽

시옹[siop] 화순, 장성, 함평, 나주

시옹[sijop] 장성, 함평

송[sjon] 장성

쉬옹[swijop] 장성

시엄[siəp] 담양, 나주, 장성

또 平安北道 江界, 厚昌, 慈城, 滑城 等地에서도 「병」(瓶)에 對해서 「소용」[sojop] 「쇠용」[səjop]이라고 사용한다²⁾ 하니 그 外의 地方에서도 相當히 많이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.

* 人文大 教授 (國語學專攻)

1) 拙著: 韓國方言辭典(玄文社, 1978) p. 622 參照.

2) 이는 平北, 江界出身인 金履淡氏(70歲)의 報告에 依한 것인데, 全氏에 依하면 平北全地域에서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.

따라서 筆者의 管見으로는 이 「소용」系의 變化形들이 「병」(瓶)을 意味하는 우리의 固有語로 믿고 싶은데, 「譯語解補, 43」이나 「同文類解下, 14」에는 소용(小口瓶), 또는 「柳信著 物名考 一, 羽蟲」에는

쇠용(小口瓶)
기름쇠용(脂瓶)

등의 記錄이 보이고 있고, 이는 또 高麗時代까지 遡及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, 「鷄林類事」에는

銀瓶曰 蘇乳

의 記錄이 보이는데, 이 「蘇乳」가 「소용」, 「쇠용」의 原形이라고 보인다. 왜냐하면, 「蘇乳」는 「소유」, 「소요」, 「쇠요」 또는 「쇠오」 등의 音寫라고 보이는데, 여기서 途中에 語末音으로 「이」[-i]가 發生해서 「소유」, 「소용」, 「쇠용」 또는 「쇠용」 등으로 發展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.

따라서, 「소용」, 「쇠용」 등은 「瓶」을 意味하는 우리의 固有語이었다고 보이는데, 途中에(그 어느때부터인지는 不明이지만)³⁾ 漢字語인 「瓶」(병)이 이와 並用하게 되고, 또한 모든 語彙의 境遇와 한가지로, 文化語라는 點에서 優勢하게 使用되어서 우리 固有語를 敗北시키고, 오직 山間僻地에서만 그 命脈을 維持해 오게 한 것으로 解釋된다.⁴⁾

參考로 付記하면, 「訓蒙字會」, 「類合」 등의 記錄은 모두 「瓶」은 「병」이었다.

호병호(壺, 小曰——) 訓蒙字會中: 7

엷병(瓶, 大曰——) 訓蒙字會中: 7

병호(壺) 類合上: 27

병병(瓶) 類合上: 27

이 우리 固有語 「소용」, 「쇠용」에 對한 漢字語 「瓶」(병)의 支配는, 「마름」에 對한 「江, 河, 湖」, 「:되」에 對한 「山」, 「글게」에 對한 「대패」(<錐

3) 鷄林類事: 瓶曰 瓶

따라서 鷄林類事時代에도 이미 並用되었던가?

4) 咸南 咸興地方에서는 「소용」[sɔjɔŋ], 「스영」[sɔjɔŋ]으로 使用하고, 咸鏡道의 좀더 넓은 地域에서도 使用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.

鎗) 等等과 한가지로, 數많은 우리 固有語의 漢字語에 對한 敗北史中의 一例이다.

2. 「兵은 잠개 자넨 사름미오」(月印釋譜序: 6)

「손에 장기 업거든 잊지 의심하느니」[가라 더 아구라 아구 애누 커너훈 겸비](三譯總解二; 8)

以上에서의 「잠개」, 「장기」는 「兵器」를 意味하고, 特히 「쇠붙이」로 만들어진 兵器를 指稱했었던 것 같다.

그러나, 「잠개」, 「장기」가 「兵器」나 「鎗」, 「環刀」 등의 漢字語化되는 代身, 「쇠붙이」로 만든 農器具를 「잠기」, 「장기」로 轉用했었다.

[凶凶 兵잠개로 農器를 디오(凶兵鑄農器)——重刊杜詩諺解三: 4]

잠기(犁), 物羅, 耕農條

잠기 메오는 동아줄(耕索), 同上

잠기로 가라(鐵犁耕之) 恩重經; 26

잠기 연장 다스려라. 齊丘永言; 74

그리해서 現在에는 「쟁기」는 논과 밭을 소가 끌고 가는 代表的인 農器具의 名稱으로 되었고, 各地方의 方言에서도 若干의 變化形이 있는 것도 事實이기는 하나, 大體的으로 「쟁기」系가 支配的이다. 그러나 慶北의 一部分과 慶南地方에는

홀치이[hultʰipi] (慶北——영천, 포항, 영덕)

(慶南——울산, 양산, 김해, 마산, 창원, 하동, 거제, 충무, 진주, 남해, 창녕, 밀양)

우치이[hutʰipi] (慶北——울진[평해])

홀찌이[hulʰtʃi] (慶南——울산)

홀찌[hulʰtʃi] (慶南——양산)

홀지[huldzi] (慶南——충무)

혹전[hikʰtʃin] (慶北——예천)

혹찌[hikʰtʃi] (慶北——영주, 예천)

등의 「홀치이」[hultʰipi]系가 分布되어 있으나, 勿論 「쟁기」[tʃengi]系도 미

력하지만 共存한다.

또 慶北의 蔚珍에서 三涉을 向해서 慶北道와 江原道の 中間에 있는 조그만 재를 하나 넘으면, 三涉郡 三湖面이 나오는데, 여기서부터 「쟁기」는 또 다른 系의 變化形이 나타난다. 卽

보구레[pogure] (江原—호산, 임원진, 근덕, 삼척, 북평, 묵호, 옥계, 강능, 주문진, 외 대부분의 江原道地方)

보구료[poguro] (江原—삼척, 도계, 신기, 마차리, 근덕)

따라서 「쟁기」(犁)는 「홀치이」[hults'iji]系와 「보구레」[pogure]系로 三系로 나누어지는데, 이송녕박사 등 감수의 「한국어 대사전」에 依하면, 「홀치이」는 「극쟁이」의 方言인데, 「극쟁이」는 『농기구의 일종으로 쟁기와 흡사하나, 몸체가 약하고 술이 곧장 내려갔으며, 끝이 무덤. 소 한마리로 끌어, 바닥이 좁고 거칠은 밭을 알게 갈거나, 또는 쟁기로 갈아 놓은 논밭에 골을 타는데 사용함』이라 記錄되어 있다.

다만 「보구레」系는 그 緣由를 찾을 길 없는데, 「訓蒙字會 中: 九」에는 「犁보레, 又稱보십曰~頭, 又把~밭외, 又駁牛又耕也」⁴⁾라는 記錄이 보이는데, 여기의 「보」는 우리의 固有한 「耕因之具」의 名稱으로 보이고, 또한 「又把犁밭외」의 「밭외」는 「把犁」의 音寫인듯 싶으나, 「보」의 또다른 名稱이 「밭외」인 것으로 解釋하고 싶다.

그렇게 되면 「보구레」는 그 原形을 *「보굴계」*[pogulge]로 再構시키고, 여기에서 *「보굴계」*[pogulge]의 末音節의 [~g~]가 流音[-l-]과 母音[-e] 사이에서 脫落해서 「보굴에」>「보구레」[pogure]로 江原道の 全地域에 殘存하게 되었고, 한때 中央地方에서는 「보구레」의 第二音節에 介在하는 [-g-]도 母音[-o-]와 母音[-u-] 사이에서 脫落해서 「보우레」>「보레, 또는 「밭외」, 또는 「보」, 「보십」 등으로 되었으나, 中央地方에서는 이미 「耕田之具」가 「잠개」, 「잠기」(兵器) 등으로 轉用하게 되어서, 「보구레」, 「바레」, 「밭외」, 「보」形 등은 이에 代替를 當하고 겨우 江原道の 全地域에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.

4) 犁犁 보 [四聲通解上, 28]

보쉬 <보수(冶匠) [푸젤로 「露韓辭典」 p. 169]

「犁」字는 그음이 「리, 러」 등으로 「쟁기」를 意味하는 漢字에는 이 「犁」字뿐이다.

3. 「들」[ti:l]

野 : 드르[訓蒙上:14]에 對해서

버당[pədaŋ] (江原—강릉, 삼척)
(慶北—울진)

버머기[pədəgi] (咸北—성진, 길주)

버덕[pədək] (咸北—나남, 부령, 무산, 회령, 종성)
(咸南—이원)

버덜기[pədəlgi] (咸北—경흥)

버덩[pədəŋ] (忠北—계천)
(江原—통천, 장진, 고성, 간성, 양양, 주문진, 강릉, 영월, 평
창, 원주, 횡성, 홍천, 춘천, 인제)
(慶北—울진, 평해)

버대기[pədəgi] (咸南—서천)

번덕[pəndək] (慶南—거제)

번덕[*pəndək] (慶南—충무, 거제)

等等의 「버덩」[pədəŋ]系가 보이는데, 이 「버덩」은 그 古語와 語源을 찾을 筈 없으나, 「朝鮮語辭典」(朝鮮總督府刊, 1919)에는 「버덩」名 荒野(全上, p. 374)로 나오고, 또 前記 「한국어 대사전」에 依하면, 『높고 평평하나 나무는 없이 잡풀만 난 거친 들』로 記錄되어서, 方言의 「버덩」[pədəŋ]과 同一 語임이 分명한데, 지금은 前記한 바와 같이 咸南北, 慶南北, 江原道에만 使用되고 있음을 본다.

4.

「계모」(繼母)는 大概의 國語辭典에 『아버지의 後妻, 後母』 등으로 說明되어 있고, 이의 各地方言의 變化形으로는 「개:모」, 「계모」, 「계:모」, 「계모」, 「계:모」, 「기:모」 또는 「지:모」 등으로 發音되고 있다.

또 嚴密하게는 다른 뜻이지만, 地方에 따라서는 「계모」(繼母)와 同一하게 使用되고 있는 語彙로 「서:모」(庶母)系가 있는데, 그 變化形으로 「서모」, 「서:모」, 「서무」, 「스모」가 發見되고, 또 「의:붓어머니」(義母)도 같은 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는데, 그 變化形으로 「으붓어매」, 「으부어머니」, 「이:붓어마이」, 「이부드마이」, 「이부어매」, 「이:붓더머니」, 「이:붓어마이」, 「이:붓어매」, 「이붓어머니」, 「이:붓어머이」, 「이붓어머히」, 「이붓엄마」, 「이:붓엄마」等等이 各地에서 使用되고 있고, 또 「새엄마」가 忠北, 江原地方에서 使用되고 있다.

그런데, 慶南北一部에서 「다선어머니」形이 使用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.

- 다서너매[tasənəme] (慶南—충무)
- 다선내미[tasənnemi] (慶南—김해)
- 다선어머히[tasən-əməppi] (江原—삼척[호산])
- 다수너매[tasunəme] (慶南—사천, 충무)
- 다시내미[tasinemi] (慶北—포항)
- 다시너매[tasinəme] (慶南—남해)
- 다신어마이[tasin-əmai] (慶北—울진)
- 다신엄마[tasin-əmma] (慶北—포항)

等等이 發見되는데, 이는 「다슴」(假)과 「어머니」(母)의 複合語로

- 다슴어미(繼母)——三綱行實圖孝一, 東國新續三綱行實圖, 孝十八,
- 다슴어미(繼母)——翻譯小學九: 24

등의 後繼語이며, 또한 이 「다슴」(假)은 「아버」, 「즈식」等에도 接頭해서,

- 다슴아버(繼父)——二倫行實圖, 十九
- 다슴즈식(假子)——內訓(初刊)三: 22, 24

等으로 使用되었었다. 또한

- 다시애미[tasi-emi] (慶北—경주)
- 다섯째엄마[tasət'tje-əmma] (慶南—함천)
- 낫선어마이[nassən-əmai] (慶北—영덕)

等이 發見되는데, 이들은 「다시-」(更), 「다섯째-」(五次), 「낮선-」(낮이 설다) 等の 意義로 잘못 訛轉된 것으로 보인다.

또 「자근오모이」[tʃagʌn-omoi](慶南—창녕)은 semantics 上으로 理解가 가는 것이지만은, 「형엄마」[hʌŋ-amma](忠南—대전)는 무슨 理由로 이런 方言形이 形成되었는가?

5.

「할아버지」(祖父), 「할머니」(祖母)는 「하다」(大, 多)의 冠形詞形 「한」과 各己 「아버지」와 「어머니」가 複合되어서 「할아버지」>「할아버지」, 「할어머니」>「할머니」形으로 굳어버린 것으로 생각된다.

하나비 조(祖)——訓蒙字會上: 31

하나비 옹(翁)——訓蒙字會上: 33

하나비 수(叟)——訓蒙字會上

하나빌 미드니잇가(皇祖其待)——龍歌 125章

하나버이(祖父母)——家禮諺解一: 44

한아비 옹(翁)——類合上: 17

——杜詩[初刊]八: 54

——金綱經三家解二: 48

한아바님(祖父)——月印釋譜十: 10

한어미(婆婆)——譯語類解上: 56

한어버이(祖父母)——小學諺解五: 43

할아버(祖父)——東國新續三綱行實圖, 孝四: 67

할마님(祖母)——小學諺解六: 26

할미 파(婆)——訓蒙字會上: 31

할어버이(祖父母)——東國新續三綱行圖, 續烈: 9

그리고 各地의 方言 變化形들은 모두가 이 「할아버지」, 「할머니」系와 「조부」(祖父), 「조모」(祖母)系들이다.

그러나 地方에 따라서는 接頭한 冠形詞形 「한」을 「큰」(大)으로 代置해서 「큰아버지」, 「큰어머니」로 한 地方도 있다.

크나베⁵⁾ [k'ina:be] (咸北—혜산진, 청진, 길주, 경성, 경흥)

크나바이 [k'inabai] (咸北—경성, 길주)

(慶北—안동地方)

크나부지 [k'inabudzi] (咸北—혜산진)

크나베 [k'inabe] (慶北—안동地方)

크나버지 [k'inabədzi]⁶⁾ (慶北—안동地方)

(咸北—혜산진地方)

크나마 [k'iname]⁷⁾ (咸北—경흥, 경성, 혜산진)

크너메 [k'inəme] (咸北—혜산진)

(慶北—안동地方)

크너머니 [k'inəməni] (咸北—혜산진)

(慶北—안동地方)

또한 平安北道の 江界, 渭城, 慈城, 厚昌 및 大體的으로 平北 全地域에는

커 : 큰아버지 [k'ə:lbadzi] (祖父)

커 : 큰마니 [k'ə:lmani] (祖母)

로 使用해서 「큰아버지」系와 同一系에 屬하고, 咸鏡北道地方에도 좀더 넓은 지역에 이 「큰아버지」系가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推測되나, 실지 조사한 바 없어 기록할 수는 없다.

6.

주로 「사내아이」에게 입히는 저고리가 있는데, 한 쪽 끈을 길게 해서 가슴둘레를 한번 돌리고 매서 입히는 上衣를 全羅南北道地方에서는 「뚝지」 [top²tʃi], 「뚝바애」 [tombəpə]라고 호칭한다.

뚝지 [top²tʃi] (全南—강진, 순천, 광양, 구례, 하동〔화계면〕)

뚝지 [top²tʃi] (忠北—영동, 충주)

(全北—전주)

5) 푸절로 「露韓辭典」 p. 159.

「크나빅/큰아버/조뵈(祖父)」

6) 安東文化國學術調查報告書(1964~1966) IV, 方言篇 p. 142.

—成均館大學校國語國文學科—

7) 푸절로, op. cit. p. 9.

(全南—광양[진상면], 구례)

(江原—원성, 횡성, 춘성)

덥지[təptʃi] (全南—고흥)

툼지[t'optʃi] (全南—여수)

또 同一한 것을,

(全北—경음)地方에서는 「덥배」[təppe]로

(全北—진안, 장계)地方에서는 「배매기」[pe-megi]로

(全北—임실)地方에서는 「베네저구리」[pene-dzəguri]

로 使用하고, 또

툼바우[tombapu] (全南—여수)

툼바애[tombape] (全南—강진, 화순, 보성)

等으로 사용하고 있다.

以上の 「툼바우」, 「툼바애」形은 「동옷」(胴衣)(남자가 입는 저고리)의 變化形들임이 틀림없고, 「툼지」는 「한국어 대사전」에 依하면, 『갑옷, 마고자의 썰. 앞을 여미지 얇고 두 쪽이 나란히 맞닿음. 開襟』으로 記錄되어 있는데, 어느때부터 이 「툼지」가 사내아이들의 저고리(한 쪽 끈을 길게 해서 허리를 둘러서 매는)로 轉用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.

7.

「대님」은 「남자의 韓服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,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 매는 좁다란 끈」이고, 또 「譯語類解上: 45」에는 「대님 선」을 「小帶子」로 說明되어 있다.

現在에는 「서울」을 爲始해서 京畿, 忠南北, 全南北, 濟州, 그리고 慶南北道一部地方에서는 「다님」, 「대님」, 「단님」, 「앤님」, 「다: ㄴ님」 등이 分布되어 있고, 또 이의 變化形으로, 「낸님」, 「다임」, 「다이」, 「랭님」, 「원님」, 「재님」, 「젠님」, 「젠님」 等等이 各地에 分布되어 있다.

또 主로 黃海, 咸南等地에는 「다님백기」, 「다루매기」, 「다르매」, 「다리막

기, 「다리매」, 「다리매기」, 「다리매이」, 「다리매키」, 「다림매키」, 「대님매키」等等的 方言形이 分布되어 있어, 이는 「다님」, 또는 「대님」과 「매다」(東)의 名詞形 「매기」와의 複合形이거나, 또는 「다리」(脚)와 「맺다」(結)의 名詞形 「매기」와의 複合語의 構成인 것 같다.

그러나 慶南北道の 各地方에는

- 가부매이[kabu'tei] (慶北—군위, 의성)
 가부매이[kabu'tepi] (慶南—창녕, 김해)
 가부매이[kabu'tei] (慶南—창원, 마산, 양산)
 가불매이[kabuldepi] (慶南—울주)
 가불매이[kabul'tepi] (慶北—청송)
 가붓매이[kabuttepí] (慶北—영천, 대구, 의성)
 (慶南—울산, 양산, 김해, 진주, 거창)
 가붓매이[kabut'tepi] (慶南—양산)
 가부매이[ka'pu'tei] (慶南—밀양)
 갑대이[kaptepi] (慶南—사천)
 갑매기[kap'tegi] (慶北—포항)
 갑매이[kap'tepi] (慶北—포항)
 (慶南—창원, 김해, 창원, 의령, 동래, 부산, 합천, 밀양)
 갑매이[kap'tei] (慶南—남해)
 갑띠이[kap'tiipi] (慶北—영덕)
 (慶南—마산)
 갑띠:[kap'ti:] (慶北—영덕, 포항)
 까붓대:이[?kabutte:pi] (慶南—참원, 부산)
 까붓매이[?kabut'tepi] (慶南—밀양, 울산)
 갑다히[kaptapi] (慶南—고성)
 갑대히[?kaptepi] (慶南—거제, 남해)
 갑대히[?kaptepi] (慶南—거제)
 갑떼기[?kaptegi] (慶南—창녕)
 갑매이[?kap'tei] (慶南—남해)
 쑤매이[?koptei] (慶南—충무, 거제)
 쑤매이[?kop'tepi] (慶南—충무, 거제)

等等的 變化形이 分布되어 있는데, 于先 이 「가부매이」, 「가부매이」系는 完全하게 慶尙南北道の 各地에만 分布 使用되고 있는데에 注目이 되는데, 그 語彙構成이 分析이 되지 않고, 따라서 그 語源을 밝힐 수 없으나, 或은 新

羅以來의 殘存語이라면 대단한 稀貴語로 보고 싶고, 恒常念頭에 두고 생각해 보고 있으나 아직 解結할 수 없다.

이 외에도 亦是 慶尙北道 一部地方에만,

- 바때이 [pa'tei] (慶北—영주, 봉화, 울진)
- 바때임 [pa'tsim] (慶北—예천)
- 밭때이 [pal'teji] (慶北—안동)
- 밧때이 [pat'tei] (慶北—청송)
- 밧때이 [pat'teji] (慶北—예천, 영주, 청송, 울진)

等等이 分布되어 있는데, 上記 「가부때이」, 「가불때이」, 「가붓때이」 등과 「바때임」, 「밭때이」, 「밧때이」 등이 어떠한 關聯이 있는가, 또는 各己 全然 別系에 屬하는가도 아직 不分明하다.

8.

「진드기」科에 속하는 벌레의 총칭으로의 「진드기」⁸⁾는 若干의 變化形을 除外하고는 大體的으로 「진드기」系의 變化形들이 各地에 分布되어 있다.

그러나 亦是 慶尙南道에는

- 가무나리 [Kamunari] (慶南—창녕)
- 가부나리 [Kabunari] (慶南—창녕)
- 가부내기 [Kabunegi] (慶南—양산)
- 가분나리 [Kabunnari] (慶南—합천, 거창, 산청, 함양)
- 가분다리 [Kabundari] (慶南—밀양, 울산, 양산, 부산, 김해, 마산, 거창, 함양, 사천, 하동, 남해, 산청, 합천, 함안, 충무, 밀양, 진양, 창원, 고성, 의령)
- 가분지 [Kabundzi] (慶南—거창)
- 까부단지 [*Kabudandzi] (慶北—경주)
- 까분다리 [*Kabundari] (慶南—거제)
- 까분다이 [*Kabundipi] (慶南—거제)
- 깁부기 [*Kambugi] (慶南—충무)

8) 진뒤 비(蟻)—訓蒙字會上: 23

等等이 分布되어 있고, 그 分布地域이 慶尙南北道에 限하는 것은 <7>의 「대
님」(小帶子)의 「가부떼이」 등이 慶尙南北道에 限해 分布되어 있는 것과 同
一하다.